

KMI 동향분석

VOL.227
2026년 8월

발간년월 2026년 8월(통권 제227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조정희
감 수 마창모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국제사회 공해어업 관리 공백 논의 본격화, 남서대서양 오징어 어장에 주목하다 - 2026 FAO 수산관리소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

박찬엽 수산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pcy0814@kmi.re.kr/051-797-4569)
정명화 수산정책연구실장
(jmh@kmi.re.kr/051-797-4571)
홍혜수 수산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doubleh@kmi.re.kr/051-797-4903)
조경준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kjcho@kmi.re.kr/051-797-4917)

오징어는 우리 국민의 식탁과 친숙한 대표적인 수산물이며, 남서대서양 공해는 최근 우리나라 원양 오징어 생산량의 97% 이상이 집중되는 핵심 조업해역이다. 그런데 이 해역은 최근 국제사회가 공해어업 관리 공백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23년 채택된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을 비롯한 해양 거버넌스 변화와 함께, 지역수산관리기구(RFMO)가 부재한 공해수역의 관리방안과 기존 국제수산관리체계 간 역할 및 협력에 관한 논의도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유엔공해어족협정(UN Fish Stocks Agreement)을 기반으로 RFMO 중심의 공해어업 관리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RFMO의 관리범위는 해역과 어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부 공해수역은 주요 어업자원을 포괄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관리 공백은 최근 학계와 국제협력 프로젝트, 시민사회 및 국제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남서대서양 공해(FAO Area 41)는 RFMO가 부재한 수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논의가 FAO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FAO 수산위원회(COFI)는 제35차 회의(2022)에서 수산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논의와 정책 권고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관리소위원회(SCFM)를 신설하였다. 2026년 개최된 제2차 SCFM에서는 지역수산관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를 핵심 의제로 채택하고, RFMO의 역할과 기능, 지역협력, 과학기반 관리체계와 함께 RFMO가 부재한 공해수역의 관리 공백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루었다. 이는 공해어업 관리 공백이 국제수산관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논의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FAO가 특히 주목한 해역은 남서대서양이었다. FAO는 일반 RFMO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공해수역으로 5개 해역을 제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남서대서양은 최근 10년간 RFMO 관할 밖 공해어획량의 약 94.6%가 발생한 최대 생산해역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자료수집과 공동 자원평가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협력과 보고(reporting) 및 관리(management) 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해역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남서대서양이 공해어업 관리 공백과 국제협력 논의를 대표하는 핵심 해역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회의에서도 공해어업 관리 공백에 대한 공통된 문제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은 과학적 자료 추적과 자원평가, 데이터 공유, 보고체계, 모니터링·통제·감시(MCS) 등 실질적인 관리기능 강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남서대서양과 공해 오징어어업을 중심으로 과학협력과 데이터 공백 해소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 등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제2차 SCFM 결과보고서 역시 관련 사항을 후속 검토과제로 제시한 만큼, 2026년 9월 개최 예정인 제37차 FAO 수산위원회(COFI)에서 관련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국제사회의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남서대서양은 최근 우리나라 원양 오징어 생산의 핵심 조업해역으로, 공해어업 관리 공백을 둘러싼 국제 논의는 우리나라 원양 산업의 장기적인 조업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최근 원양산이 국내 오징어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남서대서양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은 국내 오징어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우리나라는 「원양산업 발전법」에 따른 공해어업 관리체계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국제논의 참여 및 산업계와의 협력 경험을 지속적으로 연계·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BBNJ 협정의 이행과 WTO 수산보조금협정을 둘러싼 국제규범 논의가 진전되면서, 공해어업 관리 공백에 대한 대응이 국제협력과 과학기반 관리의 측면에서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 축적된 관리·과학·현장 기반을 상호 연계하여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관리성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조업국과의 자료 공유, 공동연구분석, 공동 자원평가 등으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서대서양 공해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국제수산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 원양 오징어의 지속가능한 조업기반을 함께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공해어업 관리 공백을 둘러싼 국제사회 논의 확산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BNJ)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는 2004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BNJ)*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 개시하였으며, 정부간 실무그룹(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준비위원회(PrepCom), 정부간회의(IGC) 등을 거쳐 약 20년간의 협상 끝에 2023년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이하 BBNJ 협정)이 채택됨¹⁾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ABNJ)은 공해(high seas)와 심해저(the Area)를 통칭함²⁾

- BBNJ 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ABNJ 거버넌스의 주요 관리 공백(governance gaps)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기존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음³⁾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중심의 공해어업 관리체계와 BBNJ 협정의 쟁점

- 국제사회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유엔공해어족협정(UN Fish Stocks Agreement) 등을 기반으로 공해상에서의 어업을 지역수산물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이하 RFMO)를 중심으로 관리하여 왔음
- 그러나 지역별·어종별 특성에 따라 RFMO의 설립 및 관리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부 공해수역은 특정 어종만 관리하거나 주요 어업자원을 포괄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이에 BBNJ 협정의 이행과 맞물려 RFMO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수역의 관리방안과 기존 국제수산물관리체계 간 역할·협력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⁴⁾

■ 국제사회의 RFMO가 부재한 공해수역에 대한 관심과 문제제기

- 또한, 최근에는 학계, 국제협력 프로젝트, 시민사회 및 국제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RFMO가 부재한 공해수역을 주요 연구 및 논의 대상으로 다루면서, 남서대서양 공해수역(FAO Area 41)을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하는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1) FAO(2026), Fisheries and the BBNJ Agreement: A Guide. pp 1-2.

2) United Nations(2023),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ticle 1.

3) FAO(2026), Fisheries and the BBNJ Agreement: A Guide. pp 1-2.

4) BBNJ 협정은 기존 국제법 체계와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를 약화시키지 않는(not undermine)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기존 기구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는 협정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특히, 남서대서양은 참치류를 제외하면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RFMO가 부재한 대표적인 공해수역으로, 관련 논의도 관리체계 보완과 과학협력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 공표된 연구에서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 Studies), 해양정책(Marine Policy), 해양학(Discover Oceans) 분야를 중심으로 남서대서양을 국제수산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관리 공백 사례로 분석하고, 지역 차원의 관리체계, 국제협력 및 통합 해양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EU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는 과학협력과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협력체계를 제안하였으며, 국제 NGO와 언론에서도 남획 우려, RFMO 미설립 및 규제 공백 등 관련 쟁점을 지속 제기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1〉 FAO Area 41 공해어업 관리 공백 관련 주요 연구 및 국제 논의 동향

분야	저자 기관	제목 및 키워드	주요내용
연구	Cornell Overfield & Jessica Yllemo(2025)	Options for Sustainable High Seas Fisheries Management in the Southwest Atlantic	국제법적 관점에서 남서대서양 공해어업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포괄적인 RFMO 설립과 기존 국제협정 이행방안을 제시
	Omar Defeo et al. (2025)	Facing Oceanographic, Fisheries, and Governance Hotspots: Scientific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Southwest South Atlantic Ocean	남서대서양의 주요 어업자원의 장기변화를 분석하고, 적응적 관리와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Juliano Palacios-Abrantes et al.(2026)	Integrated Ocean Governance Is Needed in the Southwest Atlantic Ocean to Foster Fisheries, Conservation and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기후변화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통합 해양거버넌스를 검토하고, 생태계 기반의 지역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
사업	EU Horizon 2020 FarFish Project (2019)	High Seas of FAO Area 41 (Southwest Atlantic): Summary of the Workshop on Sustainability on the High Seas (FAO 41)	FAO Area 41의 지속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해 단계적 국제협력과 지역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안
NGO	EJF(2025)	Bright Lights, Dim Prospects: Squid Fisheries in the Southwest Atlantic	세계 오징어 어장으로서의 FAO Area 41 수역을 조명하고,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남획 및 자원고갈 우려를 제기
언론	The Guardian, SeafoodSource, The Maritime Executive, 등	Southwest Atlantic RFMO, High Seas Squid Fisheries, Falklands dispute, Regulatory Vacuum 등 키워드	FAO Area 41(Blue Hole, Mile 201)을 중심으로 RFMO 미설립, 규제 공백(regulatory vacuum), 영유권 분쟁 및 공해어업 확대 문제 지속 보도

자료: 상기 저자·기관의 문헌 및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BBNJ 협정 이행과 함께 RFMO가 부재한 공해수역에 대한 국제 논의 확대 전망

- BBNJ 협정 이행과 기존 국제수산관리체계 간 연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RFMO가 부재한 공해수역을 대상으로 한 관리체계 보완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국제수산 거버넌스의 주요 의제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FAO 공해어업 관리 공백 논의 본격화, 그중 남서대서양 주목

■ 수산관리 분야의 전문 논의체로 출범한 FAO 수산관리소위원회(SCFM)

- FAO 수산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 COFI)는 제35차 회의(2022)에서 수산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논의와 COFI 정책 권고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관리소위원회(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 이하 SCFM) 신설함⁵⁾
- COFI는 수산 분야의 전문 논의를 위해 어류무역(Fish Trade)과 양식(Aquaculture) 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제36차 회의를 통해 SCFM을 추가로 신설하여 총 3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함⁶⁾
- SCFM은 회원국, RFMO, 지역수산자문기구(RFAB),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산 관리 분야의 정책 및 기술적 현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COFI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 특히, 효과적인 수산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적 논의의 장(new technical space)으로서 회원국 간 수산 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우선 검토과제를 발굴하며,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강령(CCRF)」 등 국제규범의 이행을 지원함
- 2026년 8월까지 SCFM은 제1차 회의(2024년 1월, 화상회의)와 제2차 회의(2026년 2월,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를 개최하였으며, 국제수산관리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회원국 및 참여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는 FAO의 공식 논의체로 운영되고 있음⁷⁾

■ 제2차 SCFM 개최와 국제수산관리 핵심 의제

- 2026년 2월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개최된 제2차 SCFM에서는 42개 국가를 비롯하여, 5개 비회원국, 1개 UN 전문기구, 26개 정부간국제 비정부기구가 참석함
- 이번 회의에서는 (i) ‘수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ii) ‘자료 및 관리역량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다종어업 평가 및 관리’ (iii) ‘어선능력 관리: 현황 및 향후과제’ (iv) ‘수산관리의 사회적 측면’ (v) ‘지역수산관리’라는 총 5개 의제를 채택하였음
- 이 중 ‘지역수산관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의제에서는 RFMO의 역할과 기능, 지역협력, 과학기반 관리체계와 함께 RFMO가 부재한 공해수역의 관리 공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으며, 회원국들도 관련 현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협력 방향을 제시함

5) FAO COFI는 1965년 설립된 수산·양식 분야의 정부간 협의체로, 주요 국제수산 현안을 검토하고 관련 권고를 제시함(FAO, Committee on Fisheries, <https://www.fao.org/cofi/en>, 검색일: 2026.7.9.), SCFM은 2022년 제35차 COFI에서 설립됨(FAO, 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 <https://www.fao.org/cofi/fish-management/en>, 검색일: 202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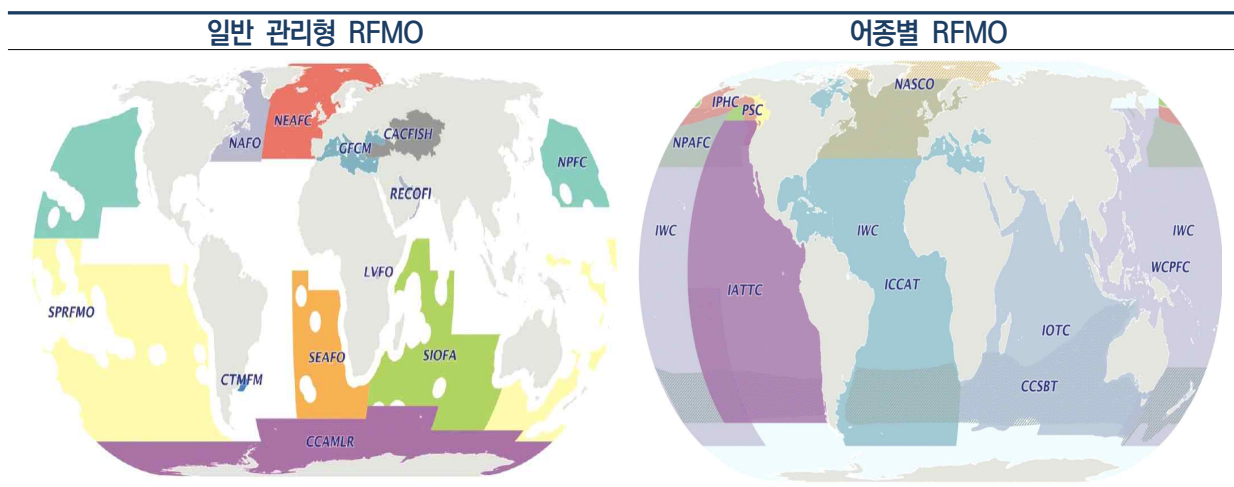
6) FAO(2024),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First Session of the COFI 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 (15–18 January 2024), COFI/2024/5.

7) FAO, 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 <https://www.fao.org/cofi/fish-management/en>(검색일: 2026.7.9.)

■ 지역수산물관리체계의 성과, 그리고 관리 공백에 대한 FAO의 문제인식

- FAO는 제2차 SCFM 지역수산물 관리 의제에서, 지역수산물기구(RFBs)가 공유자원과 회유성 자원의 보전·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RFMO가 구속력 있는 조치, 자원평가 등을 통해 공해어업을 관리하고 있고 국제수산물거버넌스의 핵심 관리수단으로 발전해 온 점을 설명함⁸⁾
- RFMO는 일반 관리형(general)과 특정 어종 관리형(species-specific)으로 특성이 구분되며, 일반 관리형 RFMO는 일정 해역의 수산자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특정 어종 관리형 RFMO는 참치, 연어, 넙치류 등 특정 어종 또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5개 참치 RFMO가 이에 해당함

〈그림 1〉 일반 관리형 RFMO(좌)와 특정 어종 관리형 RFMO(우)의 관할수역



자료: FAO(2025),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COFI 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 Second Session, COFI:FM/II/2026/6.

- 그러나 이러한 RFMO 관리체계에도 RFMO 관할 밖에 있는 일부 공해수역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⁹⁾
- 특히, 이러한 수역에서는 지역수산물기구 중심의 자료수집 체계(RFB-driven data collection frameworks)와 연안 및 공해 자원에 대한 다자간 자원평가 체계(multilateral arrangements for coastal and oceanic resource assessments)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이를 공유자원의 과학기반 관리에 한계로 평가하고 있음¹⁰⁾

8) 지역수산물기구(RFBs)는 공동 또는 공유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부간 협력기구를 의미하며, 기능과 권한에 따라 RFMO(구속력 있는 관리조치 채택), RFMA(국가 간 관리약정) 및 RFAB(과학·기술 자문)로 구분된다. FAO(2024), *The Role and Functions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GLOBEFISH Ins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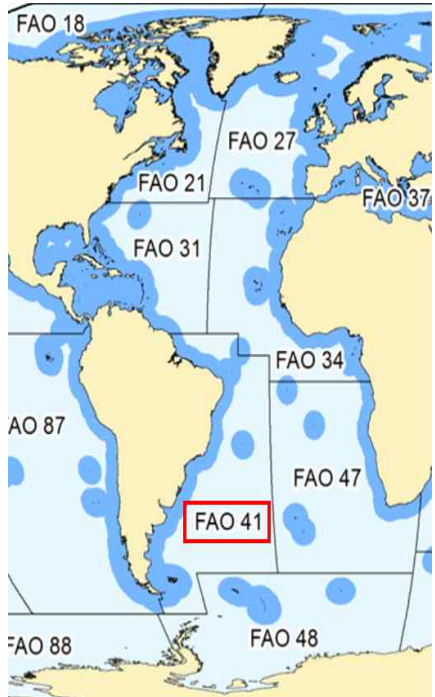
9) FAO(2025),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COFI 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 Second Session, COFI:FM/II/2026/6.

10) 위의 자료

■ 남서대서양 주목 이유: 세계 최대 공해 오징어 어장과 관리 공백의 공존

- 한편, FAO는 일반 RFMO의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공해수역으로 5개 해역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남서대서양 공해수역(Southwest Atlantic, FAO Area 41)은 어획규모가 가장 큰 해역으로,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보고(reporting) 및 관리(management) 체계 구축을 우선과제로 제시함¹¹⁾
- 최근 10년간 RFMO 관할 밖 공해수역의 연평균 어획량은 약 57만 톤으로, 이 중 약 94.6%가 남서대서양에 집중되며, 해당 해역 어획량의 약 83.0%는 아르헨티나 일렉소징어(*Illex argentinus*)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¹²⁾

〈표 2〉 제2차 SCFM 주요 문헌을 통해 본 공해어업 관리 공백 관련 주요 검토 내용

구분	주요 내용	FAO 41해역(남서대서양)
논의 배경	· RFMO 관할 밖 공해어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해 제고 필요성 제기 · BBNJ 협정과 WTO 수산보조금협정에 따른 정보·보고체계 중요성 부각 · RFMO 관할 밖 공해어업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추진	
관리 공백	· 일부 공해수역은 RFMO 형태의 관리체계 부재 · 지역수산기구 중심의 자료수집(RFB-driven data collection frameworks) 및 공동 자원평가(multilateral arrangements for coastal and oceanic resource assessments) 체계 미흡 · 공유자원에 대한 과학기반 관리와 지역협력 추진에 제약	
주요 특징	· 일반 RFMO가 적용되지 않는 공해수역은 5개 해역 · RFMO 관할 밖 공해어획량은 최근 10년 평균 약 57만 톤, 약 94.6%가 남서대서양(FAO Area 41)에 집중되며, 이중 약 83%는 아르헨티나 일렉소징어(<i>Illex argentinus</i>)가 차지	
향후 과제	· RFMO 미적용 공해수역의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보고(reporting) 및 관리(management) 체계 구축을 우선과제로 제시 · 자료수집과 자원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반 관리체계를 구축 · BBNJ 및 WTO 수산보조금협정 이행에 대응하여 RFB/RFMO의 데이터·과학·협력 기능 강화	

주: 주요 내용에 관한 근거는 FAO 제2차 SCFM 공식 문서번호(Document Symbol)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Working Document COFI:FM/II/2026/6(작업문서), Information Document COFI:FM/II/2026/INF/7(정보문서) 및 Session Background Document COFI:FM/II/2026/SBD/5(배경문서)는 자료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음

자료: FAO, 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 Documents, <https://www.fao.org/cofi/fish-management/documents/en> (검색일: 2026.7.9.) 및 Sea Around Us, Catch Reconstruction: concepts, methods, and data sources, <https://www.seaaroundus.org/catch-reconstruction-and-allocation-methods/> (검색일: 2026.8.25.)

11) 위의 자료

12) FAO(2025), Update of Species and Catches of High Seas Fisheries outside the Competence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s or Arrangements, COFI:FM/II/2026/SBD/5.

주요국, 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과 과학기반 관리 강조

■ 공해어업 관리 공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

- 주요국은 RFMO가 적용되지 않는 공해수역의 관리 공백에 공감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함
- 특히, 공해어업 관리 공백은 단순히 관리기구의 유무보다 과학적 자료 축적, 자원평가, 정보공유, 모니터링·통제·감시(MCS), 보고체계 등 관리기능을 확보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를 위해 데이터 공유와 보고체계 조화, 과학역량 강화 및 관련국 간 협력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과학기반 관리(Science-based management)의 중요성이 강조됨
- 또한, 지역별 여건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 그리고 지역 및 과학 협력 기반의 관리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남서대서양 관리 공백과 공해 오징어어업의 과학협력 논의 부각¹³⁾

- 남서대서양은 FAO 의제 검토서에서 공해어업 관리 공백의 대표 해역으로 제시된 데 이어, 논의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및 관리 방향이 집중적으로 제시된 사례로 나타남
- 브라질은 남서대서양을 공해어업 관리 공백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면서, FAO 헌장 제VI조에 따른 지역수산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관련국 간 기술·과학 협력과 정보교환 추진방안을 제안함
- 아르헨티나는 공해수역의 관리가 그 간 축적되어 온 국제규범 체계와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통해 관리기반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함
- 캐나다는 RFMO 미적용 공해수역에서 데이터 부족과 보고체계의 차이를 주요 관리과제로 지적하고, 비관리 어종과 부수어획 자료 구축, 보고체계 조화 및 정보공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은 공해 오징어조업에 있어 데이터 공백 해소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을 제안하고, 과학자료 축적, 자원평가 방법론 검토를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을 제시함
-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는 과학협력과 자료 축적을 기반으로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13) FAO, 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 Statements, <https://www.fao.org/cofi/fish-management/statements-2026/en>(검색일: 2026.7.13.)에 게시된 국가별 의견서와 제2차 SCFM 회의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 실제 발언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요국 및 국제기구 논의에서 확인된 지역수산물관리의 주요 과제

- 공해어업 관리 공백 논의와 함께 지역수산기구(RFB)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의 과학·이행 기능 강화, BBNJ 협정 등 국제규범과의 조정, 개발도상국의 참여·이행 역량 확충 등 국제수산물관리 전반의 과제도 함께 논의됨
- 특히 데이터 수집과 자원평가, 보고체계 조화, 모니터링·통제감시(MCS) 등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여건과 회원국의 역량 차이를 고려한 기술·재정 지원 필요성 등도 제시됨

〈표 3〉 주요국 및 국제기구 논의에서 확인된 주요 수산물관리 주요 과제

구분	주요국 및 기관	주요 내용
과학기반 관리	일본,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칠레	데이터 수집·공유, 과학적 자원평가, 비관리 어종 자료 구축, 전문가 협력 및 두족류 관리지침 등 과학기반 관리 요소
국제규범 대응	EU,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공	BBNJ 협정, CBD, WTO 수산보조금협정 등 관련 국제규범과 RFMO/RFB 간 권한·역할 관계 및 상호보완성 등
개발도상국 역량	인도, 태국, 필리핀, 몰디브, 남아공	데이터 제출과 보고의무 이행, MCS 및 디지털 모니터링 수단 활용, 과학·준수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재정지원 및 교육훈련
기존 지역수산물관리체계 기능	러시아, CRFM, BOBP-IGO, GFW	기존 RFMO/RFB 운영 및 조정, 공통 데이터와 보고체계, 정보공유 및 선박 모니터링 등 지역수산물관리 기능 강화 요소
생태계·사회적 요소 등 관리	EU, 남아공, CAOPA, IPC, GFW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반 관리, 소규모어업·여성·원주민 참여, 식량안보 및 어선원 노동 등 환경·사회적 요소

자료: FAO, 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 Statements, <https://www.fao.org/cofi/fish-management/statements-2026/en>(검색일: 2026.7.13.)에 게시된 국가별 의견서와 제2차 SCFM 회의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 실제 발언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2차 SCFM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향후 검토 방향과 전망¹⁴⁾

- FAO는 회원국 논의를 종합한 제2차 SCFM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역협력 강화, 데이터·과학협력 확대, 보고체계 조화 및 지역 자원평가 역량 강화를 향후 검토과제로 제시함
- 특히 RFMO가 부재한 공해수역의 협력 강화와 공해 오징어 자원의 데이터 공백 해소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을 후속 조치로 제안한 만큼, 2026년 9월 개최 예정인 제37차 FAO 수산위원회(COFI)에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14) FAO(2026), Committee on Fisheries, 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 Second Session, Report, COFI:FM/II/2026

국민 식탁에 오르는 원양 오징어, 과학적 관리와 국제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조업 함께 만들어가야

■ 남서대서양은 우리나라 원양 오징어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수역

- 남서대서양은 2020~2024년 우리나라 전체 원양어업 생산량의 약 11~19%를 차지하는 주요 조업해역이며, 같은 기간 원양 오징어 생산량의 97% 이상이 집중된 핵심 생산해역임
- 연근해를 포함한 국내 오징어 생산에서도 원양산은 2021년 이후 절반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그 비중이 82.3%에 달하였음¹⁵⁾
- 주목할 점은 최근 남서대서양 오징어 생산이 2014~2015년 자원 급감 이후에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자원상태와 국제 관리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남서대서양 공해어업 관리 공백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 원양 오징어산업의 장기적인 조업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물론, 국내 오징어의 안정적인 공급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국제수산 현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원양어업 해역별 생산 비중 추이

단위: %

원양어업 해역별 생산비중 추이(전체)						원양어업 해역별 오징어 생산비중 추이					
해역	2020	2021	2022	2023	2024	해역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태평양	74.4	66.1	72.1	75.6	74.8	태평양	2.7	0.1	0.1	0.2	0.2
대서양	11.6	19.6	15.5	11.9	18.6	대서양 - 서남부	97.3	99.9	99.9	99.8	99.8
- 서남부	10.8	19.0	14.9	11.2	18.2						
인도양	3.5	5.2	4.4	3.3	3.0						
남빙양	10.4	9.1	8.0	9.2	3.6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원양어업통계조사

15) 연근해 살오징어(오징어) 및 원양 오징어류 생산량 기준 원양산 비중: '20년 39.1%, '21년 54.8%, '22년 56.8%, '23년 57.4%, '24년 82.3%, '25년 62.7% (국가통계포털(KOSIS), 어업생산동향조사)

■ 국제규범 변화와 함께 공해어업의 협력적 관리 중요성 확대

- 이러한 가운데, 공해어업 관리 공백 현안은 BBNJ 협정의 이행과 WTO 수산보조금협정을 둘러싼 국제 논의의 진전과 맞물려 더욱 강조되고 있음¹⁶⁾
- 특히, RFMO 관할 밖 공해어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고체계 강화는 BBNJ 협정과 WTO 수산보조금협정 등 국제규범의 이행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으로 언급되고 있음¹⁷⁾
- 한편, 남서대서양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대만, 스페인 등 주요 원양어업국이 동일 자원을 이용하는 공해 어장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련국 간 협력과 정보공유가 중요함
- 특히 남서대서양 오징어 자원은 생산 변동성이 큰 가운데, 최근 FAO SCFM 등 국제사회에서도 공해어업 관리 공백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 과학적 근거 확보, 정보·보고체계 및 국가 간 협력 등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남서대서양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관리 노력과 함께 과학적 근거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공해어업에 대한 국내 관리체계와 협력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

- 우리나라는 「원양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원양어업 허가,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조업·전재 보고, 옵서버 운영 및 중대한 위반행위 관리 등 모니터링·통제·감시(MCS)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RFMO 관할수역에서는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고 국제 공동 자원조사·자원평가 등 국제협력도 추진하고 있음¹⁸⁾
- RFMO가 부재한 FAO 41해구에서도 우리나라 원양어선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리체계가 적용되어, 조업활동과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 연구협력과 국제수산관리 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계의 조업·현장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체 의견 제시 등 협력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은 국제사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됨

16) WTO 수산보조금협정 제5.1조는 연안국의 관할 밖이면서 동시에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RFMO/A)의 권한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보조금을 부여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Article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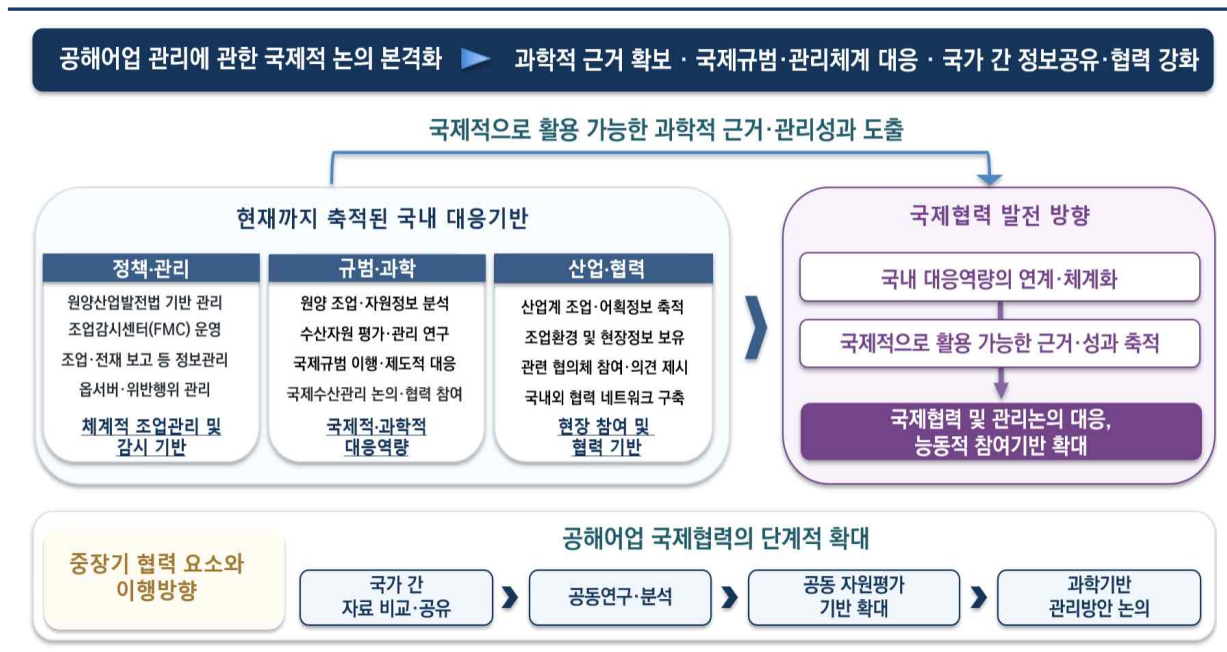
17) FAO 제2차 SCFM 정보문서는 공해어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정보·보고체계 개선이 UNCLOS, UNFSA, BBNJ 협정, WTO 수산보조금협정 등 국제규범의 효과적인 이행과 해양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WTO 수산보조금협정 제5조는 RFMO 관할 밖 공해어업 활동에 대한 이해와 보고를 개선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해어업 정보 수집과 보고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함(FAO, 2025, Improving Information of High Seas Fisheries outside the Competence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or Arrangements, COFI:FM/II/2026/INF/7).

18) 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20231호, 2024.2.6.)

■ 국내 관리체계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학적 근거·관리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관리와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야

- 최근 국제사회는 공해어업 관리 공백과 관련하여 국가별 관리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국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자료와 관리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공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구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에 축적된 관리·과학·현장 기반을 상호 연계하여, 조업정보와 과학자료, 관리성과 및 현장정보를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와 성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토대로 주요 조업국과 자료 비교·공유 → 공동연구·분석 → 공동 자원평가 기반 확대 → 과학기반 관리방안 논의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요 원양조업국으로서 남서대서양 공해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국제수산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인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기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임

〈그림 3〉 남서대서양 공해어업 대응기반과 국제협력의 발전 방향



자료: 저자 작성